

## 강증산의 해원상생과 동아시아 생명철학의 지향점\*

차선근\*\*

### ■ 국문요약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생명철학[philosophy of life]은 20세기 들어서 쇠퇴했다. 내밀하고 개인적인 데다가 비형식적·체험적·심리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생명에 대한 진보된 철학적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생명철학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그 방법은 과거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자기 성찰적(self-reflecting)이며 학술적이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사상에는 생명철학 논의의 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체가 가지는 갈등과 원한을 조명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주장은 한국의 강증산에 의해 전개되었다. 증산은 인간과 만물이 모두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상극과 그에 따른 원한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문제 진단에 따라 증산은 폭력이 아닌 상생을 전제로, 상생을 목표로, 서로 원한을 풀고 풀어주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어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해원상생(解冤相生)이다. 그의 대표적인 중

\* 이 글은 2019년 8월 4일 북경대학교 종교문화연구원이 주관한 ‘2019東亞人文國際論壇-東方文化與生命哲學國際學術研討會’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대진대학교 조교수, E-mail: chasungun@hanmail.net

교 활동인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주제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증산의 해원상생 사상을 주제로 하는 생명철학은 오늘날 가해자-피해자 문제에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자가 서로 살리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상생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의, 그리고 국가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해원상생 생명철학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생명철학, 강증산, 대순진리회, 원한, 해원상생, 가해자-피해자 문제

- I. 생명철학의 현재 주소
- II. 동아시아 생명철학의 문제의식: 원한과 해원
- III. 해원과 복수
- IV. 강증산의 해원상생: 새로운 생명철학으로서의 가능성
- V. 닫는 글

## I. 생명철학의 현재 주소

생명철학[生命哲学, 生の哲学, philosophy of life]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다. 그 요점은 인간의 본질과 존재,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지주의·실증주의·물질 만능 과학주의를 거부하고, 합리와 이성 너머에 있는 초월주의적 직관·체험·본능·감정·자유롭고 충동적인 의지로써 인간의 진정한 삶을 파악한다는 것, ② 우주의 핵심은 생명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생명의 발생·존재·발전으로 우주를 해석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독일의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나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 등이 그 대표적 학자들이다.

그들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한스 드리슈(Hans Driesch, 1867~1941)는 과학의 물질만능주의와 다위니즘, 기계적·궁극 원인론적(finalistic)이었던 과학철학에 반대하고, 심리학과 오컬트를 중심으로 종교·과학·철학을 통합하고자 했다.<sup>1)</sup> 특히 그는 아리스토텔레

1) Kocku Von Stuckrad, "Religion and Science in Transformation: On Discourse Communities, the Double-Bind of Discourse Research, and Theoretical Controversies," in F. Wijsen and K. von Stuckrad eds., *Making Religion: Theory and Practice in the Discursive Study of Religion* (Boston: Brill, 2016), pp.211-212.

스가 말한 엔텔레키(entelechy)<sup>2)</sup>를 생명현상의 본질로 규정하고, 그것은 생물의 기계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율적인 목적을 가진 힘이라고 설명했다. 생명현상은 구성 요소들의 부분적인 합을 뛰어넘는다[創發性, emergent properties]는 의미의 이 철학은 생기론[生氣論, 生機主義, vitalism]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세기 전반기까지 활발히 활동했던 그들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생명현상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신비체험에 몰두했다는 점, 생명에 대한 인식 문제에 상대주의·불가지론·염세주의·적자생존 및 약육강식을 꼬집어냄으로써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부추기고 말았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성과 물질 만능시대에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 는 현대 해석학의 원천이 되었고, 인본주의 학문 경향에 도움을 주었으며, 생명이 경쟁과 약육강식이라는 잔혹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철학이라는 비평도 받는다.

이런저런 평가를 받는 생명철학과 생기론은 내밀하고 개인적인 데다가 비형식적·체험적·심리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20세기 이후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 결과 20세기 중후반기부터 생명철학은 독자성을 상실한 채 실존주의·실용주의·현상학·해석학·포스트모더니즘·생태학 속에서 명맥을 이어갈 뿐이다. 최근 인류학과 고고학은 토착 종교의 유기적 정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애니미즘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생명철학 논의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들 가운데 현재 철학적 생명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곳은 기후 위기·생명 위기 시대에 떠오른 생태학이다.

생명철학과 생기론의 ‘독립적’인 존재감이 흐려진 것은 사실이다. 하

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엔텔레키는 ‘잠재력이나 본질이 하나의 형상으로 실현되는 것(the actualization of potentiality or of essence)’, 즉 ‘질료가 형상을 얻어 완성되는 현상’ 또는 ‘생명력(life force)’을 의미한다.

지만 그들이 과학과 물질만능주의·합리주의에 치우치는 세태를 비판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지난 1996년 복제 양 돌리(Dolly)의 탄생과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과 커제[柯洁], 이아마 유타[井山裕太] 등 쟁쟁한 프로 바둑기사들을 연달아 압도적으로 꺾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알파고의 통산 전적은 73승 1패).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생명에 대한 철저한 철학적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생명철학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다만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자기 성찰적(self-reflecting)이며 학술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II. 동아시아 생명철학의 문제의식 : 원한과 해원

지금까지의 생명철학 논의는 유럽과 북미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유구한 전통의 동아시아에는 생명에 대한 철학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동아시아에는 유기적 세계관이 강렬하므로 서양보다 더욱 풍부한 생명철학 어장이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여러 사상을 생명철학 논의의 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과거 특정 인물 혹은 종교적 생명 담론을 찾아 소개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작업은 특정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더 발전적인 논의의 확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동아시아의 생명철학이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우선, 어떤 역사적·사회적 담론을 배경으로 할 것인지,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21세기의 현재 시점에서, 생명철학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왜 요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윤곽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을, 동아시아의 생명철학이 갈등과 원한의 벡터값을 조명하고 그것의 해소를 미래 지향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찾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동아시아는 오래전부터 원한이 재앙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는 점 때문이다.<sup>3)</sup> 생명체의 정적인 존재 양상은 ‘life[生命]’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생명체의 동적인 존재 양상은 ‘living[삶, 生活]’이다. 삶은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불행한 삶을 만드는 원인은 지나치거나 그릇된 욕망·빈곤·무지(無知) 등 다양하겠지만, 원한 같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원한은 풀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원한을 잉태하는 게 다반사다. 평화를 지향하며 원한을 푸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대개 원한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복수와 재앙을 낳기 마련이다.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꼭 폭력을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대개 누군가를 혹은 스스로 원망하는 삶을 살곤 한다. 이런 멍에를 멘 삶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한과 그것의 해소에 대한 논의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명철학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동아시아에는 이러한 양상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원한은 동아시아 생명철학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원한을 동아시아 생명철학의 어젠다로 삼아야 할 둘째 이유는, 그것이 생명철학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시마조노 스스무, 「종교학의 문제와 동아시아 종교학의 역할」, 『종교연구』 37 (2004), p.6.

원한은 인간 내면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동체와 국가 사이의 공적인 영역에도 작동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낸다. 동아시아 만 보더라도 빈부 격차 문제, 진보와 보수 문제,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 젠더 문제, 종교 분쟁, 인종 차별 등과 같은 사회 내부의 갈등이 있고, 역사와 문화 찬탈·영토 분쟁·협한·반중·반일 같은 국제적 갈등도 있다. 이러한 혐오와 원한을 직시하고 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국가, 동아시아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생명철학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가 원한과 그 해소[解冤]이어야 하는 까닭이다.

원한을 다루는 논의는 그것이 감성적 영역에 놓여있는 것이므로, 과거 서구 생명철학의 내밀하고 개인적인 논의를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우려는 계몽주의에 입각한 합리와 이성의 관점에서는 원한을 학문적 어젠다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서구 근대성 논의 역사에서, 합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18세기 말에 낭만주의가 등장했다는 점, 계몽주의의 모더니즘이 극에 달하자 다시 그에 대한 저항으로 낭만주의를 이어받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계열과 감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계열이 변증법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면, 감성적 성향의 어젠다가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못한다. 장 아메리(Jean Améry, 1912~1978)가 계몽주의에 감성이 배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계몽주의 역시 감성을 배제한 게 아니라 ‘열정’이라는 감성을 품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던 사실<sup>4)</sup>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4)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 안미현 옮김 (서울: 길, 2012), p.13.

### III. 해원과 복수<sup>5)</sup>

해원을 주제로 삼는 생명철학을 전개하려면, 우선 그동안 해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는 원한을 입으면 그것을 풀기 위해 가해자를 찾아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거의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탈리오 법칙 (lex talionis: 同害報復法)’으로 설명된다. ‘뺨를 상하게 하면 가해자의 뺨도 상하게 하고, 눈을 상하게 하면 가해자의 눈도 상하게 하고, 이[齒]를 상하게 하면 가해자의 이도 상하게 하라’고 명시한 함무라비 법전<sup>6)</sup>이나 『성서·레위기』<sup>7)</sup>가 그 사례들이다.

동아시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중국에 ‘원한을 마땅히 풀어야 하며 맺어서는 안 된다(冤家宜解不宜結)’는 속담이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중국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다. 연기론에 기반을 둔 불교의 자비 사상이나 도교의 보원이덕(報怨以德) 사상, 또는 처벌을 보장하는 명부(冥府)의 초월적 권위도 폭력의 복수를 자제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으나 그 영향력만큼은 제한적이었다.

원한은 마땅히 복수로써 풀어야 한다는 고대 사고는 유학 사상을 만남으로써 크게 증폭되었다. 유학은 폭력의 복수를 긍정하고 오히려 장려까지 하는 특이한 관념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논어』에서 공자가

5) 이 부분은 차선근, 「한국 종교의 해원사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1), pp.50-58을 요약한 것이다.

6) 196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될 것이다’, 197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부러뜨린다면, 그의 뺨도 부러질 것이다’, 200조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사회적 신분이 동일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이는 부러질 것이다’. 윤일구, 『(고대법의 기원) 함무라비 법전』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5), pp.144-145.

7) 『관주』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1), p.184,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그 과상은 과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찌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찌니...”



“원한은 (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sup>8)</sup>라고 한 것, 『춘추 공양전』에 “임금이 시해되었는데 신하가 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신하가 아니며, 자식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sup>9)</sup>라고 한 것, 『예기』에 “아버지의 원수는 함께 하늘을 이고 살지 않고, 형제의 원수는 무기를 거두지 않으며, 친구의 원수는 같은 나라에 살지 않는다.”<sup>10)</sup>라고 했던 것이 그러하다. 유학의 이러한 이념은 복수가 폭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교적 예치(禮治)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했다.<sup>11)</sup>

물론 유학은 개인의 사적인 복수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못하게 금하고, 국가가 그 대신 복수해주는 성문법 조항을 만들어 두기는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수 방법의 정당성을 문제로 삼을 뿐이었고, 복수 그 자체는 당연시되고 있었기에 처벌은 미미했다. 중국의 『삼국지(三國志)』에 전해지는 방아친(龐娥親) 고사는 그 한 단면을 보여준다. 방아친은 자기 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살해당하자 여성의 몸으로서 직접 복수하였지만, 조정은 그녀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내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12)</sup> 이런 종류의 사건은 상당히 많아서 안지추(顔之推, 531~597)가 그런 복수담들을 모은 『원혼지(冤魂志)』<sup>13)</sup>를 편찬해 낼 정도였다. 『원혼지』는 돈황 사본에도 들어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폭넓게 유통되고 있었다. 원한을 복수로써 되갚음을 장려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었던다는 뜻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고조선 시대에 살인하면 보복 살인으로써 그 것을 되갚는 법령이 있었던 것이 그 증거다.<sup>14)</sup> 한국 전통 시대의 복

8) 『論語』, 「憲問」, “或曰以德報怨, 何如. 子曰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9) 『春秋公羊傳』, 「隱公篇」, “君弑臣不討賊, 非臣也. 子不復仇, 非子也.”

10) 『禮記』, 「曲禮上篇」, “父之仇弗與共戴天, 兄弟之仇不反兵, 交遊之仇不同國.”

11) 富谷至, 「復讐と儀禮」,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と刑罰』(東京: 日本學術振興會 科学研究費基盤研究, 2011), pp.15-18.

12) 리펑페이, 「고대 중국의 ‘복수’ 관념과 그 문학적 표현」, 『민족문화연구』 65 (2014), pp.350-351.

13) 『환원기(還冤記)』 또는 『환원지(還冤志)』라고도 한다. 『원혼지』는 원한과 복수를 인과응보 관점으로 설명한다.

14) 김창석, 「한국 고대의 복수관(復讐觀)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88 (2013), p.148.

수가 중국처럼 ‘처절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지만,<sup>15)</sup> 복수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는 유학의 도입에 힘입어 복수의 모멘텀은 떨어졌던 적이 결코 없었다. 한국에 유입된 또 다른 외세종교인 불교가 복수 자제를 가르쳤지만 실효는 없었다.<sup>16)</sup>

유학 이데올로기가 절정에 달했던 조선은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피해자가 복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까지 법률로써 명시해두고 있었다. 그것은 사화죄(私和罪)라는 것인데, 내용은 조부모·부모·가장이 타인에게 살해되었을 때 그 자손이나 처첩 심지어 집안의 노비들이 살인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사사롭게 화해하면 곤장 100대를 때리고 3년간 강제노역[徒三年期]에 처하는 것이었다.<sup>17)</sup> 물론 『대명률』에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 보복살인을 한 경우에 곤장 60대를 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sup>18)</sup>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들을 보면, 보복을 하더라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방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sup>19)</sup>

일본 역시 복수를 당연시했다. 일본 역사물에는 복수담이 매우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겐로쿠 아코 사건[元禄赤穂事件]을 묘사한 가부키(歌舞伎) ‘추신구라(忠臣藏)’다. 이 사건은 아코번[赤穂藩]의 영주 아사노 타쿠미노가미[淺野内匠頭, 1667~1701]가 사적인 다툼 끝에 키라 코즈케노스케[吉良上野介, 1641~1703]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하였다가 그 벌로 할복 당하고 영지도 몰수되자, 그의 휘하에 있었던 무사 47명이 와신상담하여 키라와 그 일가를 모두 죽여 복수한 것이다. 조정은 국법에 따라 이 사건을 일으킨 47명의 무사들

15) 이혜순, 『비교문화 I』 (서울: 중앙출판인쇄주식회사, 1981), pp.195-196.

16) 김창식, 앞의 글, pp.148-165.

17) 『大明律直解』 卷第一九, 「刑律人命尊長爲人殺私和條」, “凡祖父母父母及夫若家長爲人所殺而子孫妻妾奴婢雇工人私和者杖一百徒三年期…”

18) 『大明律直解』 卷二十, 「刑律·鬪毆·父祖被毆條」, “若祖父母父母爲人所殺而子孫孫殺行兇人者 杖六十 其即時殺死者 勿論.”

19) 최진경, 「정조시대 ‘복수살인’의 양상과 그 의미: 『추관지』 복수살인 판례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35 (2016), pp.60-67.

을 사형시켰지만, 주군에 대한 ‘기리[義理]’를 지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일본에서 크게 칭송받았다. 추신구라는 ‘47 로닌 [浪人] 이야기’로 끊임없이 회자 되었고, 지금은 일본의 국민 서사시로 생각될 정도의 위상까지 가지고 있다.

#### IV. 강증산의 해원상생 : 새로운 생명철학으로서의 가능성

이제 시대는 변했다. 근대화된 법치국가에서 개인은 더 이상 폭력의 복수를 허락받지 못한다. 전통 시대에는 사적 복수와 공적 처벌이 공존하면서도 사적 복수에 무게가 크게 실린 데 비해서, 현대에는 개인 복수가 ‘사력구제(私力救濟)’라고 하여 금지되고,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는 ‘공력구제(公力救濟)’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원한을 만들어 낸 가해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원한은 무조건 풀리기 마련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피해자는 용서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죄의식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정한 사죄와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성립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가해자가 침묵한다는 것, 피해자는 용서와 화해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안녕을 해친다는 이유, 특정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개인의 원한은 무시되거나 말살되곤 한다. 피해자가 이익을 제기하면 ‘뒤끝이 있다’는 말을 듣거나, ‘아직도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

고 있다’는 편견을 듣거나, ‘정신 질병과 성격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적이지 않다’는 폭력적인 시선에 시달려야 한다. 이래저래 피해자는 더욱 큰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동아시아의 생명철학은 이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법정 판결은 원한을 해소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원한, 해원, 복수 논의를 위해서는 종교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인류 역사에서 복수와 원한에 대한 윤리를 만들어왔던 것은 종교였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던 인물로 한국에서 활동했던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을 주목할 수 있다. 그의 해원 사상은 전통 시대의 그것을 발전시키고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기에, 해원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생명철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증산은 인간과 만물이 모두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상극(相克)과 그에 따른 원한으로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원한은 우주의 운행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원한, 즉 원(冤)은 우주와 인간 사회 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그것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세상은 극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온갖 묵은 원을 풀며 상생의 도를 펴면 세상이 평화스러워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sup>20)</sup> 이 문제 인식에 따른 해결책은 비폭력의 해원이었으므로, 증산은 그의 종교 활동 기간 대부분을 해원상생의 도가 실현되는 후천 선경을 설계하는데 사용하였다.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였다.

해원은 전통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나, 증산은 그 개념을 더욱 확장하였다.<sup>21)</sup> 그것은 첫째, 원한과 그로 인한 재앙, 그리고 해소가 논의

20) 대순진리회 교무부, 『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공사 1장 3절.

21) 차선근, 「무속과 증산의 해원사상 비교를 통해 본 대순사상 연구 관점의 문제」, 『대순사상논총』 38 (2021), pp.115-151 참조.

되는 차원을 거대화한 것이다. 전통 시대의 원한과 재앙은 인간의 특정 시공간 대에 한정되는 것이었는데, 증산은 그것을 인간의 전 역사 뿐만 아니라 자연과 신들의 영역으로까지 넓혔다. 해원의 대상은 사령(死靈)을 넘어 생령(生靈)까지 확대되었다. 한국 전통 시대에는 살아있는 자(生靈)의 원한을 풀어주는 관념은 거의 없었는데, 증산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sup>22)</sup> 더구나 증산은 해원 대상에 동물들, 나아가 우주의 특정 분야를 다스리는 신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3)</sup>

둘째로 나타나는 해원 사상의 변이는 해원 방법이 폭력의 복수에서 비폭력의 상생으로 변화했다는 것에 있다. 전통 시대에 원한은 보복으로써 풀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증산은 폭력이 아닌 사죄와 용서를 통한 상생으로써 해원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산의 가르침은, 피해자가 자신의 원한을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악의 씨앗을 다시 뿌리게 되는 일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이 과거 자신의 잘못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을 생각하여 오히려 원수를 ‘은인’으로 여김으로써 그 원한을 승화시키면, 그것이 덕을 이루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증산의 주장이다.<sup>24)</sup>

가해자에 대한 증산의 가르침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던 것으로 정리된다.<sup>25)</sup> 증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만들어 준 원한을 나타내는 용어로 ‘척(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sup>26)</sup> 그리고 척을 만들지 말며,

22) 김열규, 「원한의식과 원령신앙」, 『증산사상연구』 5 (1979), p.19.

23) 차선근, 「현대사회와 무속의례: 해원상생구의 출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2 (2013), pp.168-169.

24) 『전경』, 교법 3장 15절, 교법 1장 56절.

25) 같은 책, 교법 2장 44절.

26) 증산이 척(慼)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원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배경에는 세 가지의 가설이 있다. 첫째는 조선시대에 척(隻)이 소송사건의 가해자를 의미했기에 증산은 그것과 한국어 발음이 같은 척(慼)에 그 의미를 확장한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척(慼)’이 ‘척(戚)’과 동일한 글자인데, ‘척(戚)’은 고대 사회에서 군권(軍權)을 상징하는 부월(斧鉞)이었고, 부월은 갈고리 모양의 파(戈)를 의미했기에, 상대방을 걸어서 해를 끼치며 결국 원한을 사게 만드는 폭력 도구인 척(戚)의 의미

척이 있다면 푸는 것(가해자가 피해자의 원한을 들어 푸는 것)을 자신의 핵심적인 종교윤리 중 하나로 강조했다.<sup>27)</sup> 가해자가 척을 풀기 위해서는 반성을 우선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그 요구를 들어주거나 보복을 참거나 해야 한다.

증산이 말한 내용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죄와 용서가 이루어지면, 그때 진정한 상생이 실현된다. 그것이 바로 해원상생이다. 증산이 말하는 상생이란,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공존 혹은 공생, 상호 존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나는 너를 ‘살리고’, 너는 나를 ‘살리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말한다. 내가 너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너는 나를 살리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해자는 상생을 염두에 둔 사죄를, 피해자는 상생을 염두에 둔 용서를 해야 한다고 본다. 상생은 해원의 방법론이자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한을 덮어두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증산은 가해자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척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개혁 시대의 대심판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28)</sup> 이것이 그의 구원론과 신정론(theodicy)의 핵심이다. 따라서 증산의 해원 윤리는 구원론 및 신정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sup>29)</sup>

기독교 역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피해자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다. 이와 달리 증산의 해원상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적시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

---

를 전유하여 그것과 동일한 글자인 척(慼)을 ‘피해자의 원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가설이다. 셋째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민간신앙에서 원혼(怨魂)은 척귀(戚鬼)로 불리고 있었으므로 증산은 이것을 활용하여 척(戚)과 동일한 글자인 척(慼)에 유사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가설이다. 차선근, 「척(慼)의 어원을 찾아서」, 『대순회보』 199 (2017), pp.47-51.

27) 『전경』, 교법 1장 9절, 예시 17절.

28) 같은 책, 예시 30절.

29) 차선근, 「대순진리회에서 신정론 문제」, 『대순사상논총』 33 (2019), pp.257-286 참조.

두를 아우르는 윤리다. 특히 증산의 가르침은 피해자에게 원수가 나에게 복을 만들어주는 은인으로 여기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 가해자에게는 초월적 존재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한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30)</sup>

## V. 달는 글

증산의 해원상생 사상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사회적·역사적 갈등이 첨예한 현재의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원상생굿이 그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의 원한을 주제로 한 저항의례의 사회극이 연행되고 있다. 민간 저항의례들이 저항 담론으로 일관하여 피로감을 주고 있을 때, 부산대학교 채희완 교수는 증산의 종교사상인 해원상생을 활용하여 원한 서린 피해자들의 저항의례를 해원상생굿 형태로 바꾸었다. 1993년부터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신대 해원상생 대동굿’이 바로 그것이다. 채희완은 해원상생굿이 정신대의 원령(怨靈)을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서를 통해 그들의 원한을 풀게 하며, 그로써 상생과 대동에 도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서 분노 표출의 항의를, 상생을 위한 항의로 바꾸자는 것이다. 2002년부터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4·3해원상생굿’도 그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 추모의례들은 원령들의 원한을 되새기고 항의를 하지만, 그 목적을 비폭력의 상생에 둔다. 이로써 이 저항의례들

30) 차선근, 「기독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 원수사랑과 해원상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0 (2022), pp.39-76 참조.

은 무속의 곳이 가진 주술성을 극복하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대립과 분열보다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보다 ‘우호적으로 보이는’ 항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 사이의 과거사 갈등에도 해원상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우키시마호[浮島丸] 침몰 문제, 관동대지진 학살 문제 등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배상만으로 모든 갈등과 원한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을 겪으며 갈등이 극에 달했던 북아일랜드가 1998년에 평화협정을 성공시켰던 이유는, 국가나 공공기관 대신 피해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해자들의 원한을 달래주지 않은 채 물질적 배상에만 치중하는 것은, 정신적 상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다.

피해자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2007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밀양(密陽)’을 들 수 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살인자에게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큰마음을 먹고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에 면회를 갔더니, 정작 살인자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고, 이에 그 여인은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기 싫어서 가해자를 용서하고자 용기를 내어보지만, 가해자는 자기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피해자는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 영화는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가 제기한 ‘값싼 은혜’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해원상생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진정성’,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죄와 진정한 용서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원한, 또는 한 사회의, 그리고



한 개인의 원한이 풀리기 위해서는 법적 공방을 넘어 진정한 사죄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진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겠다는 상생의 마음가짐이다.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구분한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속죄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상생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의, 그리고 국가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원과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증산의 해원상생 생명철학이다.

학문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의 학문은 동아시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아시아 생명철학 역시 동아시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동아시아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는 국가 간 갈등과 원한, 그리고 내부 사회의 갈등과 원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생명철학은 생명의 존엄함을 위해, 갈등·원한·과국이 아닌 공존·평화·번영을 위해, 상생을 위한 해원을 출발점 및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런 생명철학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벗어나 세계로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갈등과 원한은 전 세계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論語』
- 『大明律直解』
- 『禮記』
- 『春秋公羊傳』
- 『(관주)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1.
- 김열규, 「원한의식과 원령신앙」, 『증산사상연구』 5, 1979.
- 김창석, 「한국 고대의 복수관(復讐觀)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88, 2013.
- 리평페이, 「고대 중국의 ‘복수’ 관념과 그 문학적 표현」, 『민족문화연구』 65, 2014.
- 시마조노 스스무, 「종교학의 문제와 동아시아 종교학의 역할」, 『종교연구』 37, 2004.
- 윤일구, 『(고대법의 기원) 함무라비 법전』,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5.
- 이혜순, 『비교문학 I』, 서울: 중앙출판인쇄주식회사, 1981.
-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 안미현 옮김, 서울: 길, 2012.
- 차선근, 「현대사회와 무속의례: 해원상생굿의 출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2, 2013.
- \_\_\_\_\_, 「척(慼)의 어원을 찾아서」, 『대순회보』 199, 2017.
- \_\_\_\_\_, 「대순진리회에서 신정론 문제」, 『대순사상논총』 33, 2019.
- \_\_\_\_\_, 「한국 종교의 해원사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1.
- \_\_\_\_\_, 「무속과 증산의 해원사상 비교를 통해 본 대순사상 연구 관점의 문제」, 『대순사상논총』 38, 2021.
- \_\_\_\_\_, 「기독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 원수사랑과 해원상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0, 2022.

최진경, 「정조시대 ‘복수살인’의 양상과 그 의미: 『추관지』 복수살인 판례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35, 2016.

Kocku Von Stuckrad, “Religion and Science in Transformation: On Discourse Communities, the Double-Bind of Discourse Research, and Theoretical Controversies,” in F. Wijsen and K. von Stuckrad eds., *Making Religion: Theory and Practice in the Discursive Study of Religion*, Boston: Brill, 2016.

富谷至, 「復讐と儀禮」,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と刑罰』,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科学研究費基盤研究, 2011.

■ Abstract

**Kang Jeungsan's Grievance-Resolution & Withstanding  
for Mutual Beneficence, His Direction of the East  
Asian Philosophy of Life**

**Cha Seon-keun**

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Theology, Daejin University

Philosophy of life which emerged in the late 19<sup>th</sup> century declined in the 20<sup>th</sup> century. This is because it failed to overcome the criticism that was secretive and private as well as informal, empirical, and psychological. However, cutting-edge bio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forced us to philosophically contemplate about life in depth.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no choice but bring back that issue. Compared with the past, the method to carry this out has to be just object, self-reflecting, and scholarly.

In East Asian thought, there will be no small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of philosophy of life. This article believes that one of them should be to shed light on the conflicts and grievances of life and resolve them. Such an argument was developed by Kang Jeungsan of Korea. He thought all of human beings and things were in danger of annihilation and apprehended that it had resulted from mutual contention and grievances caused

by it. According to his diagnosis for the problem, Jeungsan placed mutual beneficence under the premise and drew the solution of the grievance-resolution for one another with the aim of mutual beneficence.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one of his notable religious activities, were precisely focused on such grievance-resolution and withstanding for mutual beneficence.

The philosophy of life, which is based on grievance-resolution and withstanding for mutual beneficence, can be an appropriate solution to the perpetrator-victim problem today.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re led to be aware of themselves that they are on the position of saving each other's life. Based on this mutual beneficence, establishing the justice of an individual, the society, and the nation is just philosophy of life in the grievance-resolution and withstanding.

**Keywords:** philosophy of life, Kang Jeungsan, Daesoon Jinrihoe, grievance, grievance-resolution and withstanding for mutual beneficence, the problem of a perpetrator and a victim